장성 축령산에 모노레일·하늘다리 놓는다

군,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총 사업비 238억원 소요 예상
거동 불편 관광객 편의 제공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목적

장성 축령산 휴양림을 찾은 산행객들이 녹음이 우거진 편백나무 아래에서 휴식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장성군이 축령산 편백숲 일원에 모노레일과 하늘다리 설치를 추진한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축령산 모노레일과 하늘다리 설치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연내 각각 발주한다.

편백숲 자원을 보존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관광객도 산림욕을 즐기도록 이동 편의와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 조사에는 모노레일 3억2000만원, 하늘다리 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2021년 준공이 목표며 설치 사업비는 모노레일이 100억~200억원, 하늘다리는 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노선, 건설방안, 세부예산 등 구체적인 설계 계획은 기본계획 용역 등을 거쳐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모노레일은 경남 거제 계룡산의 사례를 참고한다.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계룡산 정상을 잇는 모노레일은 계획 초기 환경파괴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한려수도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관광 명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늘다리는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스카이웨이를 벤치마킹했다.

메타세쿼이아 숲에 자리한 장태산 자연휴양림 스카이웨이는 나무의 중간이나 3분의 2 정도 높이에 꾸민 산책로다.

장성군은 이와 별도로 편백숲 일원을 향토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자 축령산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축령산 일원에는 약 157ha 면적에 수령 60년 안팎의 아름드리 편백 250여만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룬다.

전국 최대 규모 편백 조림지에 모노레일과 하늘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 기대와 함께 산림자원 파괴 및 환경훼손 우려 목소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 관계자는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단계"라며 "최소 3년 정도 논의가 필요한 만큼 각계 의견을 두루 청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 백신특구 전경.

화순군, 국가백신제품화기술지원센터 유치

내년부터 2023년까지 213억원 투입…제약사 입주 늘듯

국가 백신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백신제품화기술지원센터'가 화순 백신특구에 들어선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가 백신제품화기술지원센터의 화순 유치에 성공, 내년 정부 예산에 1차년도 사업비 11억3300만 원을 확보했다. 백신지원센터 사업비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213억원이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기초연구부터 임상·허가·승인까지 모든 주기에 대한 기술자문을 하고 신속한 백신 제품화와 수출을 지원한다.

그동안 국내 기업은 백신 개발 관련 국내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품화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다. 백신제품화에 필수적인 '면역원성 임상시험'을 검증해 줄 국내인증기관이 없어 신속한 제품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백신지원센터 설립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적 백신 수급도 가능하게 됐다.

'2030년까지 백신 완전자급을 실현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고, 제약기업의 화순 백신특구 입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특히 백신지원센터를 장기적으로 식약처 전남분원으로 격상시켜, 백신 연구·임상에 이어 국가 인허가까지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11년 지정된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특구는 화순전남대병원(임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전임상),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시제품 생산), ㈜녹십자(대량생산) 등이 입주했으나 백신 관련 국가 기관은 없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담양 산타축제 성료…관람객 17만2000명 다녀가

야간경관·담빛사이클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 호응

제2회 담양산타축제가 지난해 30일까지 담양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담양 메타프로방스에서 열린 '하늘에서 선물이 내리면' 이벤트의 모습. 〈담양군 제공〉

지난해 12월 14일부터 30일까지 담양 일대에서 열린 제2회 담양산타축제에 17만2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담양산타축제는 '산타와 함께하는 희망 춤판' EDM(전자 댄스 음악) 공연을 끝으로 성황리에 폐막했다.

대형 산타와 트리 등 곳곳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라디오 방송인 '담빛라디오스타', '하늘에서 선물이 내리면' 프로그램 등이 열렸다.

메타프로방스와 원도심에 있는 해동주조장·다미담 예술구에서도 각각 '해동 빛의 정원' 공연과 청년 상인이 함께하는 '담빛사이클링' 행사들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산타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담양만의 특색을 살린 야간경관 연출과 아이템 개발을 통해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대표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점심시간엔 민원업무 안봐요"
담양군, 민원실 등 휴무제 시행

담양군이 새해부터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지역 12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12시~13시) 휴무제를 시행, 민원발급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번 휴무제 실시는 그 동안 직원 애로사항과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그동안 민원업무 담당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직자의 중식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극히 적은 민원수요에 대비해 민원업무를 처리해 왔다.

담양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제도정착을 통해서 친절한 민원응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결국에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확대 등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화순 유기농 인증 면적 크게 늘었다

작년 146.9ha 전년비 188%↑

화순 지역의 유기농 인증과 유기전환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의 2018년 말 기준 유기농 인증 면적이 146.9ha로 전년 78ha보다 68.9ha(증가율 188%)가 늘었다. 이는 군이 목표로 제시한 인증면적 130ha(친환경 인증 면적의 10%)를 넘어선 규모다.

전체 친환경 인증 농가와 재배 면적도 지난 2017년 1315 농가 1297ha에서 1458 농가 1356ha로 확대됐다. 전년 대비 143 농가, 59ha가 증가했다.

군은 이처럼 유기농 인증 면적이 급증한 것은 유기전환 면적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에 따르면 유기전환 면적은 2017년 160ha에서 2018년 1023ha로 639% 증가했다. 지난 2017년 전체 친환경 인증면적 대비 12.34%에 머물던 유기전환 면적은 2018년 75.44%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앞서 화순군은 지난 2017년부터 벼의 유기전환 면적 늘리기에 집중했다.

무농약 대신 유기전환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단지 조성 활성화와 과일·채소 등 친환경 인증 농산물 다양화를 지원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유기전환 벼 단지 조성에 참여한 농가에 무농약 지원금(㎡당 70원)보다 30원 많은 1㎡당 100원을, 유기농 단지에는 120원을 지원했다. 차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애초 10억 1600만원(도 20%·군 80%)을 편성했던 예산에 군비 3억 1000만원을 증액했다.

채소와 과수의 경우, 유기전환 개별 농가에 무 농약보다 각각 ㎡당 10원과 20원을 더 지원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군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추진에 농가가 큰 호응을 하고 있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려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농촌·농업의 발전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농 인증 면적 확대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감미료 無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